

## 멕시코 재무부 장관·중앙은행 총재 美 트럼프 당선에 따른 멕시코 경제관련 기자회견 내용

11월 9일 오전, 멕시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전날 美 대선 결과,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대응하여 합동 기자회견 실시

- 기자 회견 요지는 우려했던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, 멕시코는 시장 변화 감당할 정도의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강조
  - Meade 멕시코 재무장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멕시코의 6대 거시경제적 강점 부각
    - ① 정부 재정 건전성
      - 강력한 재정관리 및 세수 확대에 기반
    - ② 엄격한 대외채무 관리
      - 재무부장관은 “내년 말까지 차입을 위해 시장을 찾지 않을 것”
    - ③ 멕시코산 원유 배럴 당 42달러\* 유지
      - \* 신규 투자 및 정부 재정 충당을 위해서는 50달러 이상 되어야 함
    - ④ PEMEX(멕시코 국영석유회사) 신규 사업계획\*
      - \* 2020년까지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
    - ⑤ 충분한 외환보유고(U\$1,709억) 및 U\$88억 규모 IMF FCL\* 확보
      - \* Flexible Credit Line(탄력대출제도) : 일시적 외환이 부족해진 국가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예방하는 IMF의 금융 수단
    - ⑥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금융시스템 건재

□ 멕시코 ‘외환위원회’ 외환시장 예의 주시 및 필요 시 시장 개입도 가능함을 언급

- 멕시코 중앙은행도 다음 주에 통화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, 시장 급변 시 조기 처방도 고려
- 멕시코 Banorte은행은 향후 폐소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은행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
- 멕시코 중앙은행은 현재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할 예정이며, 아마도 11월 17일 정례미팅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분석과 대응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

□ 외환전문가들, 연말 환율 달러 당 22~23페소로 전망

- 기자회견 시 재무부나 중앙은행의 현 시점에서의 시장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폐소화 가치는 달러 당 20.20페소로 추가 하락하였으나 다시 19페소대로 소폭 상승
- 전문가들은 금년 말 폐소화 가치는 달러 당 22~23페소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내년 1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시까지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. 끝.